

오늘의 날씨와 생활1월 17일 월요일 음 12월 15일 (7월)

기상정보



파고 1.0-2.5m
파고 1.0-2.5m
파고 1.0-2.5m
파고 1.0-2.5m
파고 1.0-2.5m

호리고 비·눈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비와 눈이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4℃, 낮 최고기온은 8~10℃로 전망된다. 중산간 이상은 낮은 구름대에 의해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60%
20%	성 산	60%
20%	고 산	60%
20%	서귀포	6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3/6℃

모레

맑음

2/7℃

월드뉴스

탈레반 “모든 여학생 등교 허용 검토”

교육 공간 확보가 과제

이슬람 율법을 앞세워 여성의 사회 활동과 교육 등을 제약해온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 탈레반이 3월 하순부터 모든 여학생의 등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슬람) 재해가 시작되는 오는 3월 21일 이후부터 전국의 모든 여학생에게 학교를 개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녀학생은 학교 안에서 완전하게 분리돼야 한다”며 “여성 교육은 수용 능력의 문제”라고 말했다.

탈레반 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

탈레반 남녀 차별 규탄하는 아프간 여성들.

하지 않고 있는 서방 세계는 과거 집권 당시(1996~2001년) 샤리아법(이슬람 율법)을 앞세워 여성의 사회활동, 외출, 교육 등을 금지했던 탈레반이 다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작년 8월 중순 탈레반이 재집권한 뒤에도 아프간 34개 주 가운데 10개 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7학년 이상인 여학생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백록담

김 성 훈
편집부 부장

지구촌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코로나19 기세가 여전하다. 하지만 상황이 호전돼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다든 희망적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여행을 떠나며 회사 동료들과의 가벼운 회식 등 제약받던 일상생활이 다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닌가.

관광이 먹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주입장에서 코로나 이전으

앞으로도 제주섬에서 살아 갈 사람들이 원하는데...

로 돌아가는 시점은 경제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얼마전 제주항공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2022년 가장 가고 싶은 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제주를 세계적 관광지인 하와이와 괌, 동남아 주요관광지 등을 누르고 첫 손에 꼽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가 핫플레이스로 등극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설문 결과다.

사실 제주관광은 지난해부터 총량적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국가간 하늘길이 끊기며 외국 관광객이 실종되고 방역강화 조치로 단체관광시장이 직격탄을 맞고는 있지만 개별단위 관광객의 제주행이 이어지고 있음이다.

관광시장이 활황세를 띠던 코로나 시국 이전 제주사람들이 쏟아낸 가장 불만거리는 환경훼손이었다. 폭증하는

관광객을 겨냥한 자원은 난개발로 제주의 청정환경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유발했다.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는 첫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깨끗한 환경 때문이다. 힐링을 위한 잡사의 섬 장소로 환경이 청정한 제주가 최고란 소리 아닌가. 그런데 그런 제주가 쓰레기와 오·폐수가 넘쳐나며 고질적 사회문제로 대두된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오·폐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하고 있는데도 하수처리장 증설은 비용 문제로 지지부진하다. 쓰레기 처리가 시급한데도 장소를 찾고 시설을 하는데도 비용은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구 67만명이 사는 이 작은 섬에 실제 운행되는 차량이 무려 40만대를 넘어서난다. 교통난은 스트레스를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환경이 깨끗하던 그 옛날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제주사람들이 적지 않다.

수년전 제주사회에 이슈를 가져왔던 환경보전기여금, 이른바 입도세가 최근들어 재부각되고 있다. 입도세는 제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일정액의 돈을 거둬 환경문제를 해소하려는 게 골자다. 입도세란게, 돈이란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모두가 조심스럽다. 관광업계는 관광객 감소 우려를 걱정하고 정부는 지역 형평성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환경훼손 예방과 오염물 신속 처리, 그리고 제주관광이 처한 업종간 부의 양극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신의 한수가 바로 환경보전기여금이다. 청정환경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이 늘수록 제주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아이러니다. 무엇보다 지금 제주에서 살고 또 살아야 할 제주사람들이 원한다. 환경보전기여금이 하루속히 도입돼 하는 절대 이유이기도 하다.

엘린마당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끝 마치며

고 경 대
제주특별자치도 인사팀장

민선7기 마지막 정기인사가 12일 마무리 됐다.

이번 인사는 여성 간부공무원 전진배치, 하위직·소수직렬 사기진작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보건·안전분야 우대,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전보 최소화화 민선7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 퇴직인원 증가 등으로 부족한 7급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행정시에서 전임시킴으로써 행정시 역량 약화, 인력 빼가기 등 노동조합과 언론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양 행정시도 결원이 많아져 7급 인력에 대한 도전출을 꺼려하고, 도청은 인력 충원이 어려워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

당당한 구급대원 되기 위해

김 해 연
한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2022년 1월 3일부터 2주간 나의 소방실습이 진행됐다.

첫날 서부소방서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후 조원과 함께 배정된 애월 119센터로 이동했다. 어색하고 아무것도 몰라 방황하면서 앞으로의 실습을 걱정하던 찰나, 센터에 계시던 센터장님, 팀장님, 주임님 그리고 반장님들께서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 줬다.

다음날 구급차와 센터에 적응해 가던 중 첫 출동을 나갔다.

나의 첫 번째 환자는 배에서 사고로 떨어진 낙상 환자였다. 그날 출동하는 동안 긴장되고 떨리던 마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것이다. 도착 후 반장님은 빠

르게 처치된 환자를 들것으로 옮겼고 환자를 이송하면서 나는 부목고정을 도왔다.

출동뿐만 아니라 센터 내에서도 가슴 압박, IV 확보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며 학교에서는 잠시 보고 지나가거나 책에서 사진으로만 접한 구급차 내부의 물품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며 사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대원님들께서는 늘 먼저 우리에게 다가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진료에 대한 여러 조언을 해주셔서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의문들에 큰 도움이 됐고 우리가 출동하지 못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늘 설명해주셔서 좋은 공부라 됐다.

2주라는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떤 활동들보다 뜻 깊었으며 내 삶에 큰 영향을 준 시간이었다. 바쁜 업무 와중에도 많은 가르침과 관심을 주신 모든 애월 119센터 대원님께 감사드리며 다음번에는 당당히 ‘구급대원’이 돼 다시 찾아뵙고 싶다.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독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각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라실생 하우스굴 많은 견학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하귤	4, 8년생
·천혜향	1, 4년생	·궁천	3, 5, 8년생
·레드향(무목)	1, 4년생	·궁천 변이(오하라베니)	2,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레몬	3년생
·고립조생	5년생	·황금향	1, 4년생
·한라봉	1, 2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국내개발 우수한 [우리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히트예감

원터프린스[황금향]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하례조생[궁천]

※사라향[천혜향]

※탐나는봉[한라봉]

※제라몬[레몬]

과수농가 우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미니향(고립) 오하라베니(궁천변이)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늘, 금귤, 망유자, 야마나스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종묘 공급]

포트묘란?

▶진부리 형상과 뿌리손상 방지 ▶미수익기간 단축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할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진부리 형상에 좋으며 미수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귤 / 금귤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원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계장원농장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계

농업회사법인(주)장원농장

제1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3083 / 제2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4450-4316 / 010-6550-4316